

#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 고전, '되읽은 처음 읽음'의 즐거움

글 장동석 기자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  
정진홍 지음 | 강 | 381쪽 | 값 10,000원

날마다 쏟아지는 신간은 거대한 성채(城砦)라도 쌓을 듯, 컴퓨터 자판 놓을 공간만 남겨두고 책상을 점령해 버리고야 만다. 그러나 시간과 일을 핑계 삼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만 그들 중 일부를 읽게 마련이고, 그렇게 수많은 책들이 '저 인간이 언제쯤 나를 선택해 줄까'를 기다리며 나를 쏘아보곤 한다. 달마다 신간들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패배하고야 마는데 마음속 깊은 자리에 숨겨둔,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는 말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았다는 고전(古典)은 일러 무엇하랴.

그런 점에서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은 더없이 반가운 책이다. 많은 품을 팔지 않고서도 고전 8권을 섭렵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정진홍 교수의 지난 40년간의 독서편력 중 고갱이만을 가려냈으니 더욱 반가울 수밖에.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소개한 여덟 권의 책, 즉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일련의 《삼국유사》 하면 멜빌의 《모비 딕》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 노신의 《아Q정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비록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나마 읽어보았다는 점이 안도감을 갖게 한다.

저자는 책에서 고전의 '되읽음'을 강조한다. "어떤 책을 평가하는 데는 그것이 되풀이해서 읽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척도는 없을 듯 합니다"라며 그것이 꼭 되읽음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그것은 '되읽은 처음 읽음'이었습니다. 작품도 저도 모두 '이전의 작품, 이전의 나'가 아니었습니다. 회상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과거를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게 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처음이게 한다는 회상에 대한 존재론적 서술이 그대로 낯설지 않은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고전이란, 그리고 그것을 읽는 행위란 단순히 지난 옛 이야기를 추억하는 방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살아오는 현실임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것이다.

저자는 선배가 후배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인 '이러저러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조언이나 충고가 반드시 투명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제가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열된 도서 목록을 못 견디고, 사람이 되려면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필독 도서 목록을 길게 만드는 사람들을 남모르게 멀리하거나 탐탐해하지 않"는다고 《모디빅》 이야기에 끼워 넣어 던지시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저자는 고전을, 작가만의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우리 시대 독자들, 아니 나 자신의 열은 책읽기의 단면들을 날카롭지만 온화한 문장으로 통박한다. "그렇다고 해서 되읽음이나 되읽힘의 원초적인 충동과 중국적인 책임이 작가와 작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의 정황과 맥락은 오히려 더 원초적이고 중국적일 수 있습니다. '읽음'이 없으면 '읽을 거리'의 존재 의미도 없어지니까요."

'되읽음'을 충동하는 긴 여운, 끝내 그 여운을 지울 수 없는 아련한 유혹. 그것이야말로 독자들을 유혹하는 고전의 치명적인 힘이지만, 그 치명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눈 밝은 독자'들이 없다면 고전은 단순히 박제된 지식의 무덤일 뿐,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지혜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정진홍 교수는 명확히 갈파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되읽기를 감행하고 싶습니다"라는 저자가 뒤이어 한 말은 가히 내게 충격적이다.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요. 제 나이가 그럴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처음 읽기'로 선택된 책들마저 앞으로 되읽기의 기회를 갖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욕심일까요?"

나는 언제라서, 점령군처럼 내 책상에 파리를 틀고 있는 이들을 '처음 읽기' 할 것이며, 그들을 언제고 다시금 '되읽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장동석**